

전화 상담사례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A Case Analysis on Marital Conflict Problem and Coping Behavior

— Focused on the Telephone Counselling —

계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 교 이 미 영

교 수 박 혜 인

Dept. of Home Management, Keimyung Univ.

assistant : Mi Young Lee

Prof. : Hye In Park

〈목 차〉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arital conflict problem and coping behavior.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 For the data, 1069 counselling case of the married people were collected on S counselling center in Daegu, from January to May, 1994.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main problems are marital debauchery affairs and then the value orientation, character and communication problem in turn.
2. Most clients used the complain type as the coping behavior.
3. Recognized problem of oneself is debauchery problem and the self-damage and immaturity. Recognized problem of spouse is husband's incapacity, debauchery and violence · alcohol problem in wife case. Recognized problem of couple is a sexual problem for the most case.

I. 머리말

부부관계는 결혼으로 맺어진 밀접한 관계이며, 생

리적·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 보완의 관계이다. 그러나 부부는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남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갈

등과 충돌은 불가피하다. 또한 산업화와 더불어 평등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의 도입으로 여성은 근대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으나 실제 사회제도와 가족내의 가치관은 아직도 전통적인 경향이므로 이러한 가치관의 혼재는 부부관계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김갑숙 등, 1992). 그러나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갈등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부부가 서로의 위치와 역할에서 어떻게 갈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Sprey, 1979).

최근 전화 및 면접상담을 하는 기관이 증가하였기에 따라 가족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담사례를 통하여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전화상담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실제 가정생활에서 생기는 갈등의 단면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접근방법의 하나라고 하겠다. 이제까지 상담기관에서는 내담자 실태를 파악하는 수준의 통계 분석에 머물렀으며, 상담을 통한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가 한 편(유윤희, 1994)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화를 통해 상담해 온 부부갈등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 방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갈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부부갈등의 해결 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상담교육프로그램의 방향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화상담에 나타난 부부갈등문제는 무엇인가? 2) 부부갈등문제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3) 문제 발생형태에 따라 대응행동은 어떠한가? 4)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대응행동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어떠한가? 5) 문제발생형태별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대응행동은 어떠한가? 6) 내담자가 인식한 문제원인 제공자에 따라 부부갈등문제는 어떠한가?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전화상담사례를 분석하였으므로 전화상담의 특수성 즉 일회상담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분석대상이 S상담소의

기록에 한정되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다른 상담자료 분석연구와의 비교 고찰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갈등의 관점 및 정의

갈등(Conflict)은 심각성 정도에 따라 관점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갈등의 정도가 한계를 넘을 때는 역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기능을 한다. Coleman(1984)는 "부부간의 상충되는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를 부부갈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Galvin과 Brommel(1982)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가족구성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상반된다고 믿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다"고 하여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가족갈등을 정의하였다.

이와같이 갈등은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욕구의 충돌상태 및 기대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불일치로 정의할 수 있다.

2. 갈등의 유형

갈등은 개인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 표현 또한 다양하므로 유형을 여러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Lewin(1935)은 생활에서 일어나는 욕구의 동기에 따라 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집단·집단의 갈등은 힘이 비슷한 두 개의 유사성을 가진 욕구, 즉 긍정적인 욕구가 동시에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생기는 갈등이다. ② 집단·회피의 갈등은 끌리는 목표와 싫은 목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생기는 갈등이다. 독립 대 의존, 친밀 대 독립, 협동 대 경쟁 등 두 반대되는 동기가 지닌 양면성 때문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③ 회피·회피의 갈등은 두 개의 부정적인 갈등이 동시에 나타나서 이룰 수도 적릴 수도 없는 경우이다. 가장 쉬

운 방법은 도피하는 일이지만 도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분노가 폭발한다든가, 폭음, 자살 등의 사태가 일어난다.

둘째, Rice(1979)는 가족갈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개인내 심리적 갈등은 개인 내면에 있는 서로 상반된 충동, 본능, 가치 등에 의한 긴장의 결과이다. ② 개인간 심리적 갈등은 개인의 욕구가 상대에 의해 좌절될 때 나타나는 공격성, 회피, 해체 등이 반복 발생되어 나타난 심리적 갈등이 원인이다. ③ 상황적 혹은 환경적 갈등은 가족원의 실직이나 죽음, 가계곤란, 사회적 압력 등 기대치 않았던 사건들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다(김혜경, 1987).

셋째, Coleman(1984)은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① 이성적 갈등과 비이성적 갈등 ② 표면화된 갈등과 내재적 갈등 ③ 상황적 갈등과 만성적 갈등 ④ 개인적 갈등과 대인적 갈등 ⑤ 원초적 갈등과 비원초적 갈등으로 원초적 갈등은 배우자의 부정과 같이 결혼의 계속성을 위협할 만한 갈등을 말하며, 비원초적 갈등은 결혼의 지속성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갈등을 말한다.

3. 부부갈등과 갈등의 제요인

1)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Lantz와 Synder(1962)은 갈등이 표면에 나타난다고 해서 결혼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잠재해 있던 어려움을 표출하는 결과가 되어 이제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고 했다. 부부간의 갈등은 당사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성원 각 개인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즉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은 서로 대화가 잘 안되고 상호작용이 없으며 정신적 협조를 못한다. 이런 심리적 결혼가정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역기능을 함으로써 문제아를 발생하게 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가출 내지는 비행을 유발하게 된다(이신영, 1983).

2) 부부갈등의 제요인

Scanzoni(1970)의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급전문제,

사녀문제, 친구문제, 친족문제,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고, Rice(1976)는 부부의 갈등영역으로 사회적 요인(지위, 소득, 교우관계), 관계요인(애정, 존경, 관계의 평등, 성적 관계, 의사소통, 역할기대, 친밀성, 자녀관계 등의 문제), 개인적 관계(건강, 종교, 가치관, 취미 등의 문제)로 크게 분류하였다. 한남제(1971)는 금전관리의 문제, 친척관계, 성격 불일치, 배우자의 무관심과 부정행위 등으로 분류하였다. 유영주(1977)는 부부갈등의 원인은 성격 차이, 습관 차이, 성생활문제, 정신연령 차이에서 온다고 하였다.

이밖에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부족 및 미성숙도 부부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개인적 요인 이외에 자연적인 재해나 전쟁, 경제불황, 정치적 혼란, 인구의 도시집중화,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률 증가, 새로운 성윤리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로 부부갈등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갈등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한 여러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어 갈등요인을 정확히 알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요인으로, 자연적·사회적 요인을 제외하고 개인적 요인에서 중요한 문제 10가지를 선정하였다.

4. 갈등에 대한 대응행동

대응행동(Coping Behavior)이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다. Chodoff(1964)는 심리적인 안정에 대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방법의 총체가 대응행동이라고 정의했다. 효과적으로 갈등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부정적 행위를 억제하고, 숙고·반성하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Cohen, 1986). Rice(1979)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회피, 건설적인 싸움, 문제 자체보다 상대의 자아를 공격하는 파괴적인 싸움, 위협과 복종, 역할유도·역할수정·역할역전, 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 등으로 분류했다. Pearlin과 Schooler(1978)는 개인이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 대한 대응방법의 종류와 범위가 많고 클수록,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발산할 수 있

어 대응능력이 강해지고 더욱 효과적인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을 배우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응수준이 매우 낮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들이 부부갈등문제에 상담해 온 대응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다. 즉 하소연하는 상담(하소연형), 적개심을 표출하는 상담(적개심표출형)의 소극적 대응과,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상담(문제해결방안 모색형)과 구체적 행동방안을 묻는 상담(행동수행형)의 적극적 대응으로 나눈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대구에 위치하고 있는 S상담소에 전화로 상담을 의뢰해 온 사례중 부부갈등에 관한 상담 1069사례이다. 자료수집 기간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4년 5월 31일까지이며, 예비조사는 1993년 7월 1일에서 31일까지 실시하였다.

1994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S상담소의 상담상황은 총 3850건이었다. 이 중에서 문제유형에 분류하기 곤란한 예외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인 기타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본 연구자료인 부부문제였다. 자원봉사상담자는 2/3가 기혼자이고 1/3은 미혼자였다.

2. 연구방법 및 자료처리

연구방법은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상담소의 일지기록을 토대로 부호화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자료

의 척도가 모두 명목척도(Nominal Scale)인 까닭에 빈도와 백분율만 구하여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 경향을 살펴보았다. 질적분석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된 132사례를 중심으로, 내담자가 인식한 문제의 원인 제공자에 따라 분류·분석하였다. 부부갈등문제는 원인제공을 누구로 인지하는가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른데 이러한 측면은 양적 고찰로서는 파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자신으로 인한 문제, 둘째: 상대방 즉 배우자에 의한 문제, 셋째: 부부상호간의 문제, 넷째: 자녀로 인한 문제, 다섯째: 가족 외적 구성원인 친척에 의한 문제로 분류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부부갈등문제와 대응행동에 대한 양적 분석

1) 부부갈등문제 분포

부부갈등문제에 있어서 외도(34.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표 1), 다음은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문제, 친족관계문제, 자녀문제, 성생활문제, 폭력·알콜문제, 배우자의 낮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 경제문제, 배우자의 도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발생형태별 부부갈등문제를 살펴보면(표 2)와 같다. 단순문제의 경우는 외도문제(36.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문제, 친족관계문제, 자녀문제, 성생활문제, 폭력·알콜문제, 배우자의 낮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 배우자의 도박문제, 경제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복합문제의 경우는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문제(26.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도문제, 폭력·알콜문제, 성생활문제, 친족관계문제, 경제문제, 자녀문제와 배우자의 낮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 배우

〈표 1〉 부부갈등문제 분포

N = 1069(%)

부부갈등문제	외도	의사소통	성생활	폭력알콜	자녀	친족관계	외박가출	도박	경제	기타	합계(%)
빈도	364	167	85	81	97	120	48	17	22	68	1069
(%)	(34.1)	(15.6)	(8.0)	(7.6)	(9.1)	(11.2)	(4.5)	(1.6)	(2.1)	(6.4)	(100)

〈표 2〉 문제발생형태별 부부갈등문제 분포

N = 1069(%)

부부갈등 문제 발생형태	의도	의사 소통	성생활	폭력 알콜	자녀	친족 관계	외박 가출	도박	경제	기타	합계 (%)
단 순 문 제	300 (36.3)	102 (12.3)	63 (7.6)	50 (6.1)	90 (10.9)	99 (12.0)	41 (5.0)	15 (1.8)	12 (1.5)	54 (6.5)	826 (100)
복 합 문 제	64 (26.3)	65 (26.7)	22 (9.1)	31 (12.8)	7 (2.9)	21 (8.6)	7 (2.9)	2 (0.8)	10 (4.1)	14 (5.8)	243 (100)

- 1) 단순문제 : 한가지 문제만을 상담한 경우
- 2) 두가지 이상의 문제를 상담한 경우

자의 도박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의도문제로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은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 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도문제로 부부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관련이 있다. 즉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 의도에 관대하며, 성적 욕구를 가정밖에서 해결할 기회와 장소를 쉽게 제공받는다. 이러한 성문화는 부부갈등을 야기할 뿐만아니라 가정 해체의 심각한 요인이 된다.

복합문제에 대한 상담 중 두 가지 문제의 결합양상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의도문제 특히 배우자 의도문제는 폭력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성생활문제는 의도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났다. 시가문제는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문제와 결합되어 나타나고, 폭력문제와 알콜문제는 서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문제는 문제와 문제가 서로 맞물려 연결고리를 형성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내담자들은 문제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부부갈등문제

부부갈등문제를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자가 더 많이 상담한 문제로는 성생활문제, 배우자의 낮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이다. 여자는 의도문제,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문제, 폭력·알콜문제, 친족관계문제, 그리고 경제문제를

더 많이 상담하였다. 남성내담자가 부부간의 성생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많이 하였는데 미혼상담자가 전체상담원중 1/3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담자 교육과정에 성교육 및 성에 관한 상담기법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20대에서는 가치관·성격 및 의사소통문제, 성생활문제, 폭력·알콜문제를 많이 상담했으며, 40대에서는 친족관계문제를 많이 상담했고 50대에서는 자녀문제를 많이 상담하였다. 의도문제와 폭력·알콜문제는 전문직에서 많이 상담하였고 성생활문제는 사부직과 판매서비스직에서, 친족관계문제는 주부가 많이 상담하였다. 배우자의 낮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는 생산직에서 많이 상담했다. 특히 의도문제나 폭력·알콜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이 전문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 가치관, 성격 및 의사소통문제는 국졸에서 많이 상담하고 폭력·알콜문제와 배우자의 낮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는 중졸에서, 친족관계문제는 고졸에서 많이 상담하였다.

3)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대응행동

부부갈등문제에서는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728(68.1%)명이고, 다음은 문제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201(18.8%)명, 구체적인 행동을 상담한 경우가 85(8.0%)명, 적개심표출을 한 상담은 55(5.1%)명으로 나타났다〈표 5〉.

문제발생형태에 따른 대응행동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부부갈등문제발생형태별로는 대응행동에 차

〈표 3〉 복합문제에 대한 부부갈등문제 결합양상

N = 1069(%)

부부갈등문제		a1	a2	B	C	d1	d2	E	f1	f2	g1	g2	H	I	J	합계 (%)
A: 외도문제	a1: 배우자		2 (3.1)	9 (15.5)	1 (1.7)	16 (27.6)	3 (5.2)	2 (3.4)	3 (5.2)		1 (1.7)	2 (3.4)	4 (6.9)	2 (3.4)	13 (22.4)	58
	a2: 자신	1 (16.7)		2 (33.3)	1 (16.7)	1 (16.7)									1 (16.7)	6 (100)
B: 가치관 성격 및 의사소통문제		5 (7.7)	1 (1.5)		10 (15.4)	10 (15.4)	6 (9.2)	6 (9.2)	13 (20.0)		3 (4.6)	2 (3.1)		5 (7.7)	4 (6.2)	65 (100)
C: 생활문제		8 (36.4)	2 (9.1)	5 (22.7)		1 (4.5)			1 (4.5)						5 (22.7)	22 (100)
D: 폭력 알콜 문제	d1: 폭력문제			3 (27.3)			6 (54.5)	1 (9.1)	1 (9.1)							11 (100)
	d2: 알콜문제	1 (5.0)		1 (5.0)		13 (65.0)							2 (10.0)	3 (15.0)		20 (100)
E: 자녀문제				6 (85.7)											1 (14.3)	7 (100)
F: 친족관계 문제	f1: 시가문제	1 (5.6)		7 (38.9)	1 (5.6)	5 (27.8)		2 (11.1)						1 (5.6)	1 (5.6)	18 (100)
	f2: 처가문제				1 (33.3)	1 (33.3)									1 (33.3)	3 (100)
G: 배우자의 높은 귀가, 외 박 및 가출문 제	g1: 배우자의 높은 귀가 및 외박	2 (40.0)		1 (20.0)	1 (20.0)		1 (20.0)									5 (100)
	g2: 배우자 가출				1 (50.0)		1 (50.0)									2 (100)
H: 배우자의 도박문제				1 (50.0)					1 (50.0)							2 (100)
I: 경제문제																10 (100)
J: 기타		2 (14.3)		2 (14.3)	2 (14.3)	1 (7.1)	3 (21.4)	2 (14.3)	2 (14.3)							14 (100)
합 계		20 (8.2)	5 (2.1)	11 (16.9)	18 (7.1)	50 (20.6)	20 (8.2)	14 (5.8)	21 (9.9)		1 (1.6)	4 (1.6)	6 (2.5)	11 (4.5)	26 (10.7)	243 (100)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주요한 부부갈등문제

N=1069(%)

부부갈등문제		외도	의사소통	성생활	폭력 악플	자녀	친족 관계	의박 가출	도박	경제	기타	합계 (%)
성 별	남	54 (26.5)	15 (7.4)	5 (26.5)	2 (1.0)	20 (9.8)	8 (3.9)	33 (16.2)	3 (1.5)		15 (7.4)	204 (100)
	여	310 (35.8)	152 (17.6)	31 (3.6)	79 (9.1)	77 (8.9)	112 (12.9)	15 (1.7)	14 (1.6)	22 (2.5)	53 (6.1)	865 (100)
인 명	20 - 29	19 (19.0)	23 (23.0)	18 (18.0)	10 (10.0)	3 (3.0)	12 (12.0)	4 (4.0)	1 (1.0)	2 (2.0)	8 (8.0)	100 (100)
	30 - 39	228 (35.3)	107 (16.6)	48 (7.4)	48 (7.4)	49 (7.6)	71 (11.0)	29 (4.5)	9 (1.4)	13 (2.0)	43 (6.7)	645 (100)
	40 - 49	98 (36.8)	31 (11.7)	18 (6.8)	20 (7.5)	28 (10.5)	33 (12.4)	13 (4.9)	6 (2.3)	5 (1.9)	14 (5.3)	266 (100)
	50 - 59	18 (38.3)	4 (8.5)		1 (2.1)	15 (31.9)	3 (6.4)	1 (2.1)	1 (2.1)	2 (4.3)	2 (4.3)	47 (100)
	무응답	1 (9.1)	2 (18.2)	1 (9.1)	2 (18.2)	2 (18.2)	1 (9.1)	1 (2.1)			1 (9.1)	11 (100)
직 업	신 문 직	13 (39.4)	3 (9.1)	5 (15.2)	4 (12.1)	3 (9.1)	1 (3.0)	1 (3.0)		3 (9.1)		33 (100)
	사 무 직	25 (29.4)	6 (7.1)	19 (22.4)	4 (4.7)	8 (9.4)	8 (9.4)	7 (8.2)	1 (1.2)		7 (8.2)	85 (100)
	판매서비스직	28 (32.9)	14 (16.5)	17 (20.0)	2 (2.4)	4 (10.7)	6 (7.1)	6 (7.1)	3 (3.5)	1 (1.2)	4 (4.7)	85 (100)
	생 산 직	7 (25.0)	3 (10.7)	4 (14.3)	3 (10.7)		3 (10.7)	6 (21.4)			2 (7.1)	28 (100)
	주 부	282 (36.6)	134 (17.4)	28 (3.6)	65 (8.4)	70 (9.1)	99 (12.8)	14 (1.8)	11 (1.4)	18 (2.3)	50 (6.5)	771 (100)
	기 타	1 (8.3)	1 (8.3)	1 (8.3)	1 (8.3)	1 (8.3)	1 (8.3)	4 (33.3)	1 (8.3)		1 (8.3)	12 (100)
	무 응 답	8 (14.5)	6 (10.9)	11 (20.0)	2 (3.6)	11 (20.0)	2 (3.6)	10 (18.2)	1 (1.8)		4 (7.3)	55 (100)
교 육 수 준	국 출	6 (24.0)	5 (20.0)	3 (12.0)	2 (8.0)	2 (8.0)	1 (4.0)		1 (4.0)	2 (8.0)	3 (12.0)	25 (100)
	중 출	21 (33.3)	10 (15.9)	3 (4.8)	7 (11.1)	6 (9.5)	6 (9.5)	6 (9.5)	2 (3.2)	1 (1.6)	1 (1.6)	63 (100)
	고 출	127 (36.1)	53 (15.1)	20 (5.7)	30 (8.5)	32 (9.1)	38 (10.8)	17 (4.8)	7 (2.0)	7 (2.0)	21 (6.0)	352 (100)
	대 출	84 (36.1)	39 (16.7)	30 (12.9)	12 (5.2)	18 (7.7)	26 (11.2)	2 (0.9)	2 (0.9)	6 (2.6)	14 (6.0)	233 (100)
	무 응 답	126 (31.8)	60 (15.2)	29 (7.3)	30 (7.6)	39 (9.8)	49 (12.4)	23 (5.8)	5 (1.3)	6 (1.5)	29 (7.3)	396 (100)
합 계	364 (34.1)	167 (15.6)	85 (8.0)	81 (7.6)	97 (9.1)	120 (11.2)	48 (4.5)	17 (1.6)	22 (2.1)	68 (6.4)	1069 (100)	

〈표 5〉주요한부부갈등문제에대한대응행동

대응행동	하소연형	직개심 표출형	해결방안 모색형	행 동 수행형	합계 (%)
주요한 부부갈등문제	728 (68.1)	55 (5.1)	201 (18.8)	85 (8.0)	1069 (100)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소연하는 상담, 문제해결 방안모색을 위한 상담,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 직개심표출을 한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문제를 인식한 내담자들의 대부분이 그 문제 자체를 하소연하며, 자신이 이 만큼의 고통을 가지고 있으니 알아달라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내담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그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아울러 구체적 행동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문제발생형태별 대응행동

대응행동 문제발생형태	하소연형	직개심 표출형	해결방안 모색형	행 동 수행형	합계 (%)
단 순 문 제	560 (67.8)	44 (5.3)	160 (19.4)	62 (7.5)	826 (100)
복 합 문 제	168 (69.1)	11 (4.5)	41 (16.9)	23 (9.5)	243 (100)

4)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부부갈등문제 대응행동

내담자가 상담한 문제에 대해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대응행동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남자가 문제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상담을 약간 더 많이 하고, 여자가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다소 많다. 연령에 있어서 하소연은 20대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직개심표출은 40대에서, 문제해결 방안모색은 50대에서 그리고 구체적 행동은 40대와 50대에서 상담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별로 보면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은 전문직이 많이 하며, 하소연은 사무직에서 많이 한다. 직개심표출과 문제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상담은 생산직에서 많이 하였다. 교육수준에서 대졸은 하소연을 많이 하며, 중졸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대응행동을 위한 상담을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을 여자가 많이 하였는데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이미 가정해체를 결심하고 그 절차를 상담하는 경우이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으면 부부갈등문제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방안모색을 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대졸의 경우, 문제를 하소연하는 수준에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문제발생형태별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대응행동

한 가지 문제만을 상담한 단순문제의 경우를 살펴 보면, 하소연을 많이 하는 문제는 성생활문제와 가질권·성기 및 의사소통문제이다(〈표 8〉). 친족관계문제에는 직개심표출을 많이 하였다. 문제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상담을 많이 한 문제는 배우자의 도박문제, 배우자의 늦은 귀가·외박 및 가출문제와 자녀문제이다. 폭력·알콜문제에는 구체적 행동을 많이 상담하였다. 복합문제의 경우는, 각각의 부부갈등문제에 해당하는 사례가 작으므로 전체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단순문제와 복합문제를 비교해 보면 다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복합문제보다 단순문제에 대하여 오히려 다양한 대응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알콜문제는 복합문제일 때보다 단순문제인 경우 직개심표출을 더 많이 한다. 이와 달리 친족관계문제는 단순문제일 때보다 복합문제인 경우 직개심표출을 더 많이 한다.

경제적 문제와 성생활문제에 대해 하소연을 많이 하고, 친족관계문제는 비교적 직개심표출을 많이 한다. 배우자의 도박문제에 대하여는 문제해결방안모색을 위한 상담을 많이 하며 폭력·알콜문제는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을 많이 한다. 대체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하소연하는 수준에서의 상담에 그치고, 구체적 행동을 위한 상담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정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표 7〉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대응행동

N=1069(%)

변인		대응행동	하소연형	적개심표출형	해결방안 모색형	행동수행형	합계 (%)
성 별	남		136(66.7)	10(4.9)	50(24.5)	8(3.9)	204(100)
	여		592(68.4)	45(5.2)	151(17.5)	77(8.9)	865(100)
연 령	20 - 29		73(73.0)	2(2.0)	19(19.0)	6(6.0)	100(100)
	30 - 39		451(69.9)	36(5.6)	107(16.6)	51(7.9)	645(100)
	40 - 49		171(64.3)	16(6.0)	56(21.1)	23(8.6)	266(100)
	50 - 59		27(57.4)	1(2.1)	15(31.9)	4(8.5)	47(100)
	무응답		6(54.5)		4(36.4)	1(9.1)	11(100)
직 업	전 문 직		23(69.7)		7(21.2)	3(9.1)	33(100)
	사 무 직		63(74.1)	5(5.9)	12(14.1)	5(5.9)	85(100)
	판매서비스직		56(65.9)	1(1.2)	22(25.9)	6(7.1)	85(100)
	생 산 직		16(57.1)	3(10.7)	9(32.1)		28(100)
	주 부		532(68.8)	40(5.2)	131(17.0)	68(8.8)	771(100)
	기 타		6(50.0)	3(25.0)	3(25.0)		12(100)
무 응 답			32(60.4)	3(3.9)	17(30.3)	3(5.7)	55(100)
교육수준	국 출		18(72.0)		5(20.0)	2(8.0)	25(100)
	중 출		34(54.0)	7(11.1)	15(23.8)	7(11.1)	63(100)
	고 출		230(65.3)	22(6.3)	66(18.8)	34(9.7)	352(100)
	대 출		179(76.8)	8(3.4)	33(14.2)	13(5.6)	233(100)
무 응 답			267(67.4)	18(4.5)	82(20.7)	29(7.3)	396(100)
합	계		728(68.1)	55(5.1)	201(18.8)	85(8.0)	1069(100)

〈표 8〉 문제발생형태별 부부갈등문제에 대한 대응행동

대응행동	부부갈등문제										합계 (%)	
	외도	의사소통	성생활	폭력알콜	자녀	친족관계	외박가출	도박	경제	기타		
단 순 문 제	하소연형	198 (66.0)	81 (79.4)	54 (85.7)	27 (54.0)	60 (66.7)	70 (70.7)	22 (53.7)	6 (40.0)	9 (75.0)	33 (61.1)	560 (100)
	적개심표출형	17 (5.7)	6 (5.9)	1 (1.6)	1 (2.0)	2 (2.2)	10 (10.1)	4 (9.8)	1 (6.7)		2 (3.7)	44 (100)
	해결방안모색형	63 (21.0)	11 (10.8)	4 (6.3)	8 (16.0)	26 (28.9)	16 (16.2)	12 (29.3)	6 (40.0)	2 (16.7)	12 (22.2)	160 (100)
	행동수행형	22 (7.3)	4 (3.9)	4 (6.3)	14 (28.0)	2 (2.2)	3 (3.0)	3 (7.3)	2 (13.3)	1 (3.3)	7 (13.0)	62 (100)
	합 계	300 (36.3)	102 (12.3)	63 (7.6)	50 (6.1)	90 (10.9)	99 (12.0)	41 (5.0)	15 (1.8)	12 (1.5)	54 (6.5)	826 (100)
복 합 문 제	하소연형	37 (57.8)	44 (67.7)	18 (81.8)	23 (74.2)	5 (71.4)	13 (61.9)	6 (85.7)	1 (50.0)	10 (100)	11 (78.6)	168 (100)
	적개심표출형	3 (4.7)	3 (4.6)	2 (9.1)			2 (9.5)				1 (7.1)	11 (100)
	해결방안모색형	15 (23.4)	11 (16.9)	1 (4.5)	6 (19.4)	2 (28.6)	3 (14.3)	1 (14.3)	1 (50.0)		1 (7.1)	41 (100)
	행동수행형	9 (14.1)	7 (10.8)	1 (4.5)	2 (6.5)		3 (11.3)				1 (7.1)	23 (100)
	합 계	64 (26.3)	65 (26.7)	22 (9.1)	31 (12.8)	7 (2.9)	21 (8.6)	7 (2.9)	2 (0.8)	10 (4.1)	14 (5.8)	243 (100)

2. 내담자가 인지한 문제의 원인 제공자에 따른 질적 분석

1) 자신의 문제로 인지한 상담

결혼 10년째. 자녀 둘을 둔 가정주부, 남편과 연애결혼을 했지만, 지나고 보니 성격차이도 심하고... 그리던 중 유부남을 알게 되었는데, 평소 자신이 바라던 남성상을 갖춘 사람이므로 그 유부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을수 없어 고민.

(사례 1 : 여 30대, 주부, 중졸)

결혼 7년째. 회사 동료직원인 경리와 1년정도 불륜관계. 부인에게는 불만이 있고 경리와 사이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다. 경리는 26세이고 지금은 성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제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패락에 걸들여져 있다. 경리도 결혼적령기인데 아직 생각을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2 : 남 30대, 회사원, 대졸)

자신의 문제로 상담한 사례들은 자신의 외도문제와 자아손상에 관한 상담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성의 외도 상담 사례가 근래에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외도 대상은 기혼남인 반면, 남성의 외도 대상은 주로 미혼여성인 점도 발견된다. 그리고 여성은 남편의 외도 이후 보복하기 위해 외도하는 경우가 있고, 애정없는 결혼의 결과로 외도가 일어나기도 한다. 자신의 문제를 상담한 내담자 대부분이 여성인데, 이들은 갈등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모색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괴로운 감정을 호소하는 상태에 머문다. 특히 자신의 외도문제상담을 통해서 가족의 규범혼돈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2) 배우자에 의한 문제로 인지한 상담

배우자에 의한 문제로 인지한 상담에는 남편의 무능력, 외도, 폭력 및 알콜문제와 부인의 외도나 성격차이로 나타났다.

(1) 남편의 무능력

남편의 무능력으로 상담하는 사례는 가계곤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적·환경적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Rice, 1979).

결혼한지 2년이 되었었는데 남편의 무능력때문에 별

거하고 있다. 친정에서는 이혼을 요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3 : 25세, 주부)

결혼한지 22년, 딸 고3, 고1 둘, 남편이 생활비를 잘 주지 않고 자녀 학비도 세배 주지 않는다. 남편이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도 다하면서 가정에 소홀하다.
(사례 4 : 여 50대, 주부, 고졸)

정신력이 무너졌다. 남편이 뱀다. 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 순간순간 속이기만 한다. 능력이 없다. 적금을 해야하여 달라고 해도 줄라서 해야을 하여 주었더니 더욱 심하다. 5세된 딸이 있다. 애기가 걱정이야.
(사례 5 : 여 35세, 교사, 대졸)

남편의 무능력에 관한 상담은 전체의 2.1%를 차지하는데, 내담자는 모두 여성이다. 그리고 남편의 무능력은 결혼초에는 표면적 갈등이었으나 장기화되면서 만성적 갈등이 된다. 부부 모두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인의 경제력을 핑계로 남편이 경제적 의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부인이 갈등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내담자들은 배우자의 무능력상황에서 강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모색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하소연하거나 가족해체를 상담한다.

(2) 남편의 외도

남편의 외도는 만족스런 해결이 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생기는 갈등으로 만성적 갈등이며, 결혼의 계속성을 위협할 만한 갈등이므로 원초적 갈등이다(Coleman, 1984).

남편은 3년전에 바람이 났다. 남시를 좋아한다. 현재 부인은 대구에서 아이들과 살고 남편은 영천에서 살고 있다. 남편이 의심이 나서 혼자 잠도 안온다. 남편의 일기일동이 모두 받을 수가 없다.

(사례 6 : 여 36세, 주부)

5세된 아들과 2년전부터 친정에서 기거한다. 남편은 결혼 후 줄곧 다른 여자와 여관을 전전하며 생활비 한푼도 주지 않고 이혼도 해 주지 않는다. 니스크까지 생겨서 육체 노동도 힘이 들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사례 7 : 여 43세, 주부, 중졸)

이 사례는 회피-회피의 갈등(Lewin, 1935)인데, 남편의 외도(회피), 남편의 경제적 무보조(회피)를 상담한 것이다. 이 경우 결혼생활 지속은 부인에게 고통만이 있으므로 이혼을 하고자 하나, 배우자의 반대로 이혼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전체조사대상자

의 34.1%가 외도문제로 갈등을 겪고, 그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을 상담하는 사례는 80.8%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해자인 남편이 오히려 당당히 행동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의 이중 성윤리, 가장장적 구조를 반영하는데, 남성에게 허용적인 성문화가 부부갈등문제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3) 남편의 폭력 및 알콜문제

가. 남편의 폭력

결혼한지 6년, 아기 1명, 남편은 개인 병원하는 사람인데 화가 났다하면 식도로 쇼파, 침대 닦치는 대로 짓부수고 사람을 안죽을 만큼 때린다. 이것도 한 달에도 몇번, 도저히 배겨 나기가 힘들다. 지금도 방에는 유리조각이 즐비하다.

(사례 8 : 여 30세, 주부, 대졸)

폭력은 폭력을 당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무기력 상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의 폭력이 주기적인 점은 정신과적 문제를 암시하고, 교육수준이 대졸이고 직업이 의사인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층에서 일어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결혼한지 14년 국교5(남)학년 자녀가 있다. 남편을 만났을 때 친정의 불화로 21세의 어린 나이로 잘 모르고 만나서 생활하는데 폭력이 심하고 너무 일방적이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5년전에는 여자 문제로 헤어질려고 했는데 자녀때문에 참고 살았다. 지금은 다시 생각할 여유가 없다. 헤어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사례 9 : 여 35세, 주부)

남편의 성격이나 행동, 말이 점점 포악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한지 10년 되었는데 애정은 하나도 없고 자립할 형편만 되면 혼자 살고 싶습니다. (사례 10 : 여 30대, 주부, 중졸)

이 사례의 공통점은 회피-회피갈등으로 분류되어지고(Lewin, 1935), 애정없는 결혼생활이 지금의 갈등을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 인지하는 점이다. 남편이 외도했을 때 자녀를 생각하고 참았지만 지금은 한계에 직면한 경우로 이혼을 생각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상담이다. 또,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생각하

자립이 안된다는 상담으로, 대부분 여성들이 이혼을 생각하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나. 남편의 알콜문제

폭음을 하는 남편은 10년 넘은 결혼생활을 슬프게 한다. 이혼하고 싶으나 딸이 둘이 있다. 다른 남자를 사귀고 싶은데... (사례 11 : 여 36세, 주부, 중졸)

남편의 알콜문제(회피)와 자녀들에 대한 감정(접근)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고 자신은 괴로운 상태를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지만 해결책으로 외도를 생각하는 가족규범의 아노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 남편의 폭력과 알콜문제를 함께 상담한 경우

39세 가정주부 자녀 딸둘(중3, 중1)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 술을 먹으면 장시간 동안(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게 사람을 괴롭힌다. 목을 쪼르기도 하고 말이 많고 폭행도 한다. 건지기 힘들다.

(사례 12 : 여 39세, 주부, 고졸)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하여 한밤중이라도 친구의 전화가 오면 나가서 술을 마시고는 새벽에 틀어와서 폭언을 하며 술주정이 심하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떨지요? (사례 13 : 여 37세, 주부, 고졸)

결혼 생활 13년째 딸(13세) 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때려 부수고 욕하고 사람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제는 살아갈 희망도 없는 것 같다. 내담자는 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고 있으나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

(사례 14 : 여 40대, 주부, 대졸)

남편의 폭력 및 알콜문제는 전체조사대상자의 7.6%를 차지하고 상담하는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것은 과거부터 누적되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두 문제는 서로 결합되어 복합적이다. 이러한 갈등의 영향은 부인의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화를 초래하며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3) 부부상호간의 문제

결혼생활 20년인데 부인이 갑작스레 성생활에 만

족이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이혼을 요구해온다. 재산을 자신에게도 떼어주면 자기는 집을 나가겠다고 함.

(사례 15 : 남 43세, 상임)

삼십대 중반의 남편.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이상한 부부생활을 요구해 왔다. 혹시 변태성욕자가 아닌가? (사례 16 : 남 38세, 직상임)

34살의 부인이 관계를 너무 요구하는 것 같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사례 17 : 남 37세, 개인사업, 고졸)

부부상호간의 문제는 성생활문제가 대부분이다. 전체조사대상자중 남성의 26.5%, 여성의 3.6%가 부부간 성생활문제를 상담하는 경우로 남편의 비율이 훨씬 더 많다.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직극성을 우려하고 당황해하는 경우가 많고, 여성의 경우는 남편의 소극성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남녀 성고정관념의 산물로 보여진다. 성생활문제는 서로 상호간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내담수준은 배우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소연을 하거나 배우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문제 해결방안모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부부간의 성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여 갈등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자녀문제로 인지한 문제

자녀가 국면학교 2학년인데 엄마가 아이한테 큰 잘못이던 작은 잘못이던 많이 때린다.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다.

(사례 18 : 남 30대, 회사원, 고졸)

자녀 교육 문제로 오늘도 한바탕 싸움을 치른 뒤 남편은 옆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다. 4세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낮에 자가와 있을 때는 말을 잘 듣다가도 남편만 오면 말을 안듣고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이를만 둔다. 아이 머릿이 형편없게 되었는데도 자신만 나쁜 여자로 치부한다.

(사례 19 : 여 30대, 주부, 고졸)

자녀문제로 인해 부부갈등을 겪는 경우는 전체의 9.1%이다.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불일치와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다시 부부간의 갈등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자녀가 학동기에 있는 경우는 자녀의 성적에 관심이 많다. 교육 및 자

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에게는 당연히 자녀문제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 즉 아버지가 자녀문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5) 가족 외적 구성원인 친척으로 인지한 상담

말만 들어 있는데 지금 임신중이다. 시부모님이 아들이 없다고 너무 심한 말을 하였기에 가슴이 늘 아프다. 남편은 자기 형제와 부모밖에 없다. 나는 늘 남편이 느껴지고 자매 식구는 친화한 와도...

(사례 20 : 여 30대, 주부, 고졸)

시아머니가 남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과 같고 며느리가 무척고 한번도 편안한 날이 없다고 얘기하고 다니 시며한 사이가 된 상태에서 똑같이 살겠다고 하이 코틴.

(사례 21 : 여 40대, 주부, 학졸)

장남과 결혼. 말머느리인데 둘째와 셋째 동시와의 사이에 불화, 제사, 명절 때마다 같은 갈등. 제사 음식만 만들고 끝나자 마자 돌아가는 까버린다. 말이라도 시 속성해서 남편에게 자주 하품이.

(사례 22 : 여, 주부)

친척중 시며 또는 동서들과의 갈등이며, 대부분은 시어머니가 원인 제공자로 나타난다. 부계중심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고부간의 미묘한 갈등으로 때로는 심각한 갈등으로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고충을 이해해주기 바라는 하소연수준의 대응은, 고부간의 갈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변화를 위한 통찰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위의 전화상담사례 분석을 통하여 아래의 내용을 밝혔다.

1. 전체의 34.1%가 외도문제로 갈등을 겪는데, 이 중에서 배우자의 외도문제로 상담한 사례는 80.8%이고 내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다. 또한 자신의 외도문제에 대한 상담이 19.2%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남편의 외도는 물론 특히 근래에 여성의 외도문제가 증가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남편의 외도를 보

수하기 위한 의도조차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체제의 남성중심성 즉 남성에게 허용적인 성문화가 여전히 부부갈등문제를 야기시키는 고질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주며, 또한 오늘날 성개방의 풍조와 이탈된 성문화가 부부관계에 끼치는 폐해의 심각성을 나타내 준다.

2. 부부갈등에 대한 내담자의 공통된 특징은 문제의 원인 귀속을 배우자나 문제에 얽힌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지금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갈등을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 행동을 상담해 온 경우조차,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가족해체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책임회피현상 즉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기적인 경향과 가족 규범 혼돈, 그리고 가정안정도 저하의 심각성을 확인하였다.

3. 한편 부부갈등이 힘들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혼 이외의 대안을 모색하는 여성내담자의 상황을 볼 때, 탈규범의 성문화와 대조적으로 전통적 가족규범에서 가장 변하지 않은 부분이 여성의 모성역할 영역이었다. 이것은 현재의 가족을 지켜주는 버팀목이기도 하지만 이혼이 여성에게 용이하지 않은 사회적 배경과도 연관되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부부관계를 위한 의식 전환이 요청되는 현실이다.

4. 또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 즉 아버지가 자녀분제로 상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것은 민주적인 가족관계로 변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주는 측면이며, 동시에 상담진화가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선도하여 미칠 수 있는 기능을 시사해 준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1. 의도문제나 생활문제에 대한 상담이 전체의 42.1%이므로, 상담자에게 성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혼인 여성상담자가 주로 남성 내담자들의 성문제를 상담해야 한다는 현실을 볼 때 더욱 절실하다. 또한 이를 위해 외국과 구별되는 한국가족의 성문화에 대한 연구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 부부갈등을 상담하는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통찰을 도와주는 상담기법의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경우, 그리고 자녀 때문에 더욱 이혼여부에 대한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 상담자가 가져야 할 자세와 선입견을 배제한 상담을 하기 위한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자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가치혼돈이라는 과도기에 처한 한국가족의 현실에서, 가정학이 제시해야 할 바람직한 가족의 함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구제와 일치한다.

3. 부부간의 갈등 중 생활문제는 성직식의 부족으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올바른 성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일반에게 이를 홍보하고 상담해 주어야 한다. 또 아버지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바람직한 현상을 포착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앞으로 전화상담사례 뿐만 아니라 면접상담 사례를 통한 심층적인 가족문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사례분석을 통해 상담기법에 관한 연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담사례분석은 이론의 틀보다는 한국가족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한국가족이론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계기의 하나가 된다고 본다. 외국이론을 통해 현실을 굴절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고정자. 한국도시주부의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양대박사논문, 1988.
- 2) 김갑숙·최외선.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992.
- 3) 김양희. 한국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박사논문, 1986.
- 4) 김혜경. 결혼초기 부부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1987.
- 5) 송말희.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990.

- 6) 심은희. 도시부부의 갈등해결표출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석사논문, 1985.
- 7) 안영자. 부부간의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석사논문, 1986.
- 8) 유영주. 한국 도시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가정대학논문집 4, 1979.
- 9) 유은희. 한국도시가족의 부부문제 연구,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1994.
- 10) 윤양현.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1987.
- 11) 이신영. 결혼초기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석사논문, 1983.
- 12) 한남제.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문제 : 핵가족 제도하에서의 부부관계, 경북대논문집15, 1971.
- 13) 허윤영. 남편의 커뮤니케이션 이해도와 갈등처리와의 관계, 효성여대석사논문, 1988.
- 14) Chodoff, P., Stress, Defenses and Coping Behavior Observation in Parents of Children with Malignant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 1964.
- 15) Coleman, J.C.,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 and Family, Indianapolis: The Bobbs Merrill, 1984.
- 16) Galvin, K.M. & Brommel, B.J.,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82.
- 17) Lantz, H.R & Synder E.C., Marriage, New York : John Wiley and Sons, Inc, 1962.
- 18) Pearlin, L.I. & Schooler, C.,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1978.
- 19) Rice, F.P.,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 Allyn and Bacon, Inc, 1979.
- 20) Scanzoni, L. & Scanzoni, J., Men, Women & Change : A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McGraw Hill Book Co, 1981.
- 21) Sprey, J.,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f Marriage and the Family,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Research based Theories (eds.) W.R. Burr, R. Hill, F. Nye, I.L. Reiss : The Free Press, 1979.